



주안예교회가 빨리 채플과 함께 몬트레이팍에 새 예배당을 마련했다. ©주안예교회



북한의 어린이들(사진 속 인물들은 기사 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미국오픈도어즈 제공

북한도 언젠가 십자가로 돌아올 것 탈북민 출신 활동가, 미국오픈도어즈와 인터뷰

탈북민 출신 기독교인으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최요한(John Choi) 씨가 미국오픈도어즈와 인터뷰를 갖고 북한의 어린 아이들이 기독교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자세히 전했다.

최 씨는 “북한의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기독교는 미국의 악한 종교라고 가르친다”면서 자신의 어린 적 경험을 나누었다. 그는 “북한에서 자랐을 때, 나 역시 기독교는 악하고, 십자가는 마귀의 상징이라고 믿었다. 간호학교에서도 북한 일인자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에 절을 해야 했다. 오늘날의 북한 아이들은 ‘김정은’ 사진에 절을 한다”고 전했다.

최 씨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들은 점심 시간에 김씨 일가에게 기도하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오직 김일성 일가만을 따르고 ‘미 제국주의’와 ‘남한의 괴뢰정권’을 증오하길 원한다. 북한의 적들에 대한 미움을 늘리기 위해 영화, 뮤지컬, 그림, 만화 등으로 흑색 선전을 펼친다. 이들은 문화를 통해 적국이 어

떻게 북한 주민들을 죽였는지 보여준다”며 “나도 어릴 때 사악하게 그려진 미국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최 씨는 “거짓말이 많아질수록, 이 거짓말이 드러났을 때의 거부감도 크다. 진실은 영원히 묻힐 수 없으며, 북한은 이를 너무나 오랫동안 숙여왔다. 난 북한이 결국 변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사실 북한은 지금도 변화되고 있다. 아이들은 과거처럼 잘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오늘날 북한의 아이들은 탈북민들을 통해 얻어진 정보, 한국어 해외 라디오 방송, 밀수로 들여온 USB 등을 통해서 다른 신념과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앙을 갖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아이들이 충분하게 자랐을 때 성경과 복음에 대해 들을 수 있다”고 전했다.

최 씨는 “하나님께서 북한의 모든 세대들의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한다. 만약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북한을 위해 계속 기도한다면, 어느 날 북한 아이들은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한 진실을 배우게 될 것이다. 언젠가 그들은 십자가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주안예교회 몬트레이팍에 새 예배당 입당

“겸손과 온유, 인내로 하나 되어 복음 전하자”

주안예교회가 몬트레이팍 지역에 새 예배당을 마련하고 지난 3월 18일 입당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로써 주안예교회는 벨리 채플(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과 몬트레이팍 채플(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등 두 곳에 예배당을 두게 됐다.

몬트레이팍 채플은 LA 한인타운 채플과 풀러튼 채플이 통합되는 형식으로 탄생했으며 5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본당과 각종 교실, 주방, 친교실 등을 갖추고 있다. 주안예교회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몬트레이팍 채플에서 예배를 드려 왔다. 입당감사예배는 특별한 순서 없

이 간소하게 진행했지만 뜨겁고 은혜가 넘쳤다. 경배와 찬양, 대표기도, 여성중창과 성가대의 찬양 후에 최혁 담임목사가 나와서 설교하고 축도했다. 최 목사는 설교를 통해 “겸손과 온유, 인내로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4월 1일 부활주일 남가주 각 지역에서 연합새벽예배

오는 4월 1일 부활주일을 앞두고 남가주 각 지역 교계 단체들이 연합 새벽예배를 준비 중이다.

LA 지역은 남가주교협(김재울 회장) 주관으로 오전 6시 나성소망교회(김재울 목사)에서 드리며 박효우 목사(풍성한교회)가 설교한다.

OC 지역은 OC교협(이서 회장) 주관으로 오전 5시 30분 미주비전교회(이서 목사)에서 드리며 권혁빈 목사(얼바인 온누리교회)가 설교한다. 중부 지역은 중부교협(차권희 회장) 주관으로 오전 5시 30분 감사한인교회(김영길 목사)에서 드

리며 김중현 목사(증경회장)가 설교한다. 사우스베이 지역은 사우스베이목사회(안병권 회장) 주관으로 오전 6시 토랜스제일장로교회(고창현 목사)에서 드리며 안병권 회장이 설교한다.

동부 지역은 LA동부교협(이승준 회장) 주관으로 오전 5시 30분 하나로커뮤니티교회(이승준 목사)에서 드리며 김지성 목사(글로벌선교회)가 설교한다. 인랜드 지역은 인랜드교협(강문수 회장) 주관으로 오전 5시 30분 남가주헬로교회(박해성 목사)에서 드리며 구진모 목사(언약교회)가 설교한다.

샌퍼난도밸리 지역은 샌퍼난도밸리교협(서오석 회장) 주관으로 오전 5시 30분 벨리나로교회(채효기 목사)에서 드리며 서오석 회장이 설교한다.

벤츄라 지역은 벤츄라교협(이정구 회장) 주관으로 오전 6시 시미벨리한인교회(반재근 목사)에서 드리며 권혁래 목사(카마리온열방교회)가 설교한다.

빅토빌 지역은 빅토빌목사회(김송국 회장) 주관으로 오전 5시 30분 한인성안교회(고광덕 목사)에서 드리며 강성수 목사(빅토밸리복음교회)가 설교한다.

미국 경영학 학사, 석사 과정
 BBA, Online MBA

•1년 안에 취득 가능
 •AA 학위만 있어도 취득 가능

University of Los Angeles
 Tel: (800)213-7654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컬러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ASE CERTIFIED LA Auto Tech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10K Service
- A/C Service

•월~금 : 8AM~6PM, 토 8AM~4PM •320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 735-3180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예수 부활하셨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25)

2018년 4월 1일(주일) 새벽 5:3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본당
 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주최 | LA동부지역교역자협의회 회장 | 이승준 목사 부회장 | 최준우 목사 총무 | 신용환 목사



CCC의 전도 프로그램 중 하나인 NLTC가 LA에서 진행돼 제1기생들이 졸업했다.



LA사랑의교회 예수 사랑 나눔센터의 전도자들

“전 교인이 전도자 될 때까지”

LA사랑의교회 전도센터 활동 주목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는 전 교인이 전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교회 내에 ‘예수 사랑 나눔센터’라는 전도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전도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안내해 줄 뿐 아니라 전도용 전단지, 소핑백, 작은 선물도 지원해 준다.

소핑백에 선물을 담아 매달 둘째주 목요일과 주일에 한인타운에서 직접 전도도 한다.

이 센터를 섬기는 송준현 집사는 “전도에는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가장 부담스럽게 느껴지던 전도가 이제는 가장 즐거운 사역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UC얼바인, 소망에 감사패 전달

소망소사이어티(유분자 이사장)가 UC얼바인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 3월 17일 UC얼바인은 소망소사이어티에 의료 목적의 한인 시신 기증자 증가와 관련해 감사패를 표했다. 2008년 2%에 지나지 않던 한인 시신 기증자는 소망소사이

어티의 활발한 계몽과 소개로 인해 2017년 44%로 늘어났다.

유분자 이사장은 “한인들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여러 혜택을 돌려준 것”이라며 “의과대생들이 이를 통해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길 바란다”고 했다.

지금은 전도 안 돼? 지금도 된다!

순 무브먼트 NLTC 한인교회에서 소개하고자

순 무브먼트(SOON Movement, KCCC)가 평신도 전도자를 훈련하는 NLTC(New Life Training Center, 나사렛새생명훈련원)를 LA 지역 한인교회에 소개하고 있다.

최근 순 무브먼트는 LA에서 제1기 훈련을 진행했다. 5명의 훈련생들이 6주간의 훈련을 통해 102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무려 51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기송 간사는 “훈련생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내어 캠퍼스와 직장, 주위를 찾아가 4영리를 통해 복음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김인화 간사는 “6주간 51명의 새생명이 탄생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요즘은 전도가 안 된다’가 아니라 ‘지금도 전도는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 훈련생은 “이번에 전도하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직접 찾아와 복음을 전해 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외로워하고 있다”고 간증했다. 이 훈련생은 매주 대학을 방문해 학생선교 단체들과 연계해 전도하고 있다.

이기송 간사는 “NLTC는 대학과

직장, 지역 사회를 비롯해 선교현장에서 검증된 CCC의 전도, 제자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한인교회에서 활용한다면, 전도와 양육의 체질화, 새신자의 정착, 건강한 교회 성장 등 다양한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순 무브먼트는 오는 4월 7일부터 5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6주간 제2기 훈련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3월 26일 훈련생을 면접하고 선발한다.

문의) 818-314-6643
innhwa.kim@kccccla.com

“목소리 없는 자들 위한 목소리 되겠습니다”

조세형평국 위원 출마한 한인 1.5세 벤 박 후보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Board of Equalization) 제3지구 위원에 도전하는 벤 박(Ben Pak) 후보는 “목소리 없는 자들의 목소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인천에서 태어나 부모님과 함께 볼리비아, 칠레를 거쳐 13살에 미국에 이민 온 그는 영어, 스페니시,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이민자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미국인’의 모습을 갖고 있다.

그는 고등학생 때부터 한인 클럽을 만들어 활동하면서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UC버클리를 졸업한 후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회봉사 경험을 쌓았다. ‘언제나 남을 도와야 한다’는 부모님의 가르침의 영향이 컸다. 그런

데 그가 ‘정치’에 입문한 것은 의외로 ‘사업’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양로보건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퍼밋이 발급이 되지 않아 고민하는데 한 친구가 ‘시장을 직접 만나보라’고 조언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시장을 만나 자신의 사업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한 후, 한 달 만에 퍼밋을 받게 된다. 그는 그때 정치가 우리 일상 생활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깨닫게 됐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도 알게 됐다.

첫 번째 정치 경험은 케빈 드레온 주상원의원의 보좌관이었다. 그가 상원의장이 되면서 박 후보의 역할도 커졌다. 영어와 스페니시에 능

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라티노 커뮤니티와 주류 정치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많이 하게 됐다. 현재 라티노 커뮤니티가 조세형평국의 ‘유일한 아시아인’ 후보인 그를 강력히 지지하는 이유다.

조세형평국은 연간 530억 달러의 세금을 다루는 중요한 기관이다. 자영업을 많이 하는 한인들에게는 직결된 정부 기관이다. 박 후보는 “저는 정치적 경험을 충실히 쌓아왔을 뿐 아니라 직접 사업을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조세형평국 위원직을 감당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또 그는 한인들에게 “한인은 이민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정치력 신장에 갈 길이 멀



벤 박 후보

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에게 주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예비 선거는 6월 5일에 치러

진다. 제3지구는 LA를 중심으로 벤츄라, 웨스트코비나, 놀워까지 포함하고 있는 넓은 지역이다.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ACCREDITED CHARITY
 BBB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Since 1999

www.e-nca.org

LA 학부모님, 아직도 학군 따라 이사가십니까?

여름학교 모집 6/4 - 7/27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 아이비리그 및 UC 계열대학에 진학하고, 타 사립학교 대비 월등히 경제적인 교육비로 소수정예의 교육이 가능한 NCA에서 가르치십시오.

- 졸업생 평균 GPA 4.34 및 SAT 평균 1,390점 기록 (전미주 평균 1,060점)
- 지난 19년간 전 졸업생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
- LA에서 유일하게 국제학사(IB) 및 AP 프로그램 동시 실행
- 새 학기 보충수업 위주의 썸머스쿨 운영 (필드트립 등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 편리한 교내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운영
- 미주 최초 한인이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영성 함양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K-9th 모집

입학 문의 (213)487-5437

NCA 킨더가든 모집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통치 회복하자”

[인터뷰] 남가주늘사랑교회 사경회 인도한 정승룡 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가 2월 25일 창립예배를 드리고, 대전 늘사랑교회 담임 정승룡 목사를 초청해 23~25일 말씀사경회를 개최했다. 풀러튼에 위치한 남가주늘사랑교회는 게이트웨이신학교 신약학 교수인 안상희 목사가 담임으로 시무하며, 대전 늘사랑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과 세계 복음화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KOSTA 강사, 침례교미래준비하는모임(침미준) 대표, 침례교 북한선교회 공동회장, 침례신학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하며 한국교회의 차세대 지도자로 주목받고 있는 정승룡 목사는, 이번 말씀사경회 기간 동안 ‘하나님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복음, 성령, 교회에 대해 강론했다. 미국 유학파인 그는 특별히 미국 한인교회와 다음 세대에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며 권면하기도 했다. 다음은 정 목사와의 일문일답.

-먼저 남가주늘사랑교회의 창립 취지와 비전에 대해 소개해 달라.

우리 늘사랑교회가 지난해 창립 30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 ‘선교적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 안디옥교회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사역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미 교회 개척과 전도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욱 집중하려고 한다.

또 한 가지,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할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에 대해 증언하는 전략을 취했다. 그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미전도종족 선교에 중점을 뒀었는데, 향후 5년이면 현재의 미전도종족들도 대부분 복음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187개국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선교하고 그들을 교두보 삼아 해당 지역의 원주민들을 선교해야겠다는 비전을 갖게 됐다.

그런 취지로 특별히 100만의 한인이 거주하는 남가주에, 건강한 침례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평소 복음 안에

서 함께 교제하던 안상희 목사가 풀러튼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기투합했다. 앞으로 서로가 잘 서도록 마음과 물질과 사람으로 돕고, 훈련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안 목사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말씀사경회에서 특별히 어떤 말씀을 전했다는가.

우리 소망이 하나님나라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제가 설교학을 전공하고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 논문을 썼는데, 예수님의 설교들을 연구하다 보니 그 핵심이 ‘하나님나라’에 있음을 알게 됐다.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도 하나님나라(막 1:14-15)요, 승천하시기 전 사십 일 동안에도 제자들에게 하나님나라(행 1:3)를 말씀하셨으며, 이 밖에도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은 모두 하나님나라에 대한 것이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했다.

저도 이번 집회에서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자 주제인 천국 복음, 하나님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나라가 구현되는 장으로서의 교회 등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회의 시간이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던,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했던 원초적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된 통치 안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 가르쳤다. 그저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자본주의적 복음, 마음의 평안을 준다든 심리적 복음,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사회적 복음, 죽어서 천국 간다는 피안의 복음 등만을 전해선 안 된다. 그런 것들은 복음의 한 측면일 수 있겠지만 본질은 아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의 ‘이미 믿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다. ‘이미와 아직 사이’,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역들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것이다. 교회가 복음을 사람들 구미에 맞게 전하려 하다 보면 변질되고 힘을 잃는다. 우리가 천국 복음으로 돌아가 주님의 주재권을 회복

하는 교회를 이뤄야 한다.

-한인교회 성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결국 어려운 문제일수록 기본을 풀어야 한다. 결국은 복음이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통치를 회복시키길 바란다.

저 역시 이민교회 출신으로,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사우스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이민교회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으로 청빙을 받아 왔기에 이민교회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다. 이민자들은 이미 아브라함처럼 분향을 떠나 본 이들에게 더 신앙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민교회의 다음 세대는 이미 이중언어와 이중문화를 경험한 이들로, 하나님나라 선교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들도 있다. 믿음으로 더 나은 분향을 사모하며, 완성된 하나님나라를 고대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길 바란다.

-선교에 있어 모범적 교회로 꼽히고 있는데, 늘사랑교회의 선교 사역에 대해 설명해 달라.

저는 사실 선교학자도 아니고, 방법론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다만 한때 일본 선교사 지망생이었기에, 선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다. 일본 선교를 위해 준비하던 과정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를 하게 됐는데, 오직 하나님나라에만 집중하며 선교하고자 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떻게 선교하길 원하시나’ 하는 질문에 답을 얻고자 기도하던 가운데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며, 빌립보교회가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지원함으로써 복음에 동참했던 것처럼 우리도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사람과 물질로 지원하며 전도와 제자양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 교회의 선교는 3가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 프로젝트로 리서치, 기도, 단기선교 등을 통해 ‘정탐’을 한다. 두 번째는 교회를 개척하는 기드온 프로젝트로, 선교사가 교회 개척 지역을 정하면 교회 전체의 역량을 동



정승룡 목사가 자신의 목회 철학에 대해 대답하고 있다.

원해 해당 지역을 섬기며 영적 기반을 다진 뒤 그 결실을 모아 교회를 세운다. 세 번째는 두란노 프로젝트로,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 교회의 지난해 목표가 출석 성도 중 50% 이상이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의 선교활동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거의 목표에 도달하려면 차에 갑자기 교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참여자 수는 늘었지만 비율은 줄어 들었다. 계속 50% 선교 동참을 목표로 가려 한다.

-지역사회 봉사도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역시 하나님나라의 관점에서 진행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20주년을 맞을 때 안디옥교회를 묵상했는데, 안디옥교회는 복음 전파, 인재 양성, 이웃 사랑의 모범이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모든 교인들이 동참해 장애인과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는 일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웃 사랑 유공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는데, 그 이유를 알아봤다

니 ‘교회 개척 때부터 꾸준히 진행된 성 있는 모습으로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인상 깊었다’고 하더라.

-한국교회 차세대 지도자로 주목받고 계신데, 한국교회 신규 지도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선배님들이 그분들이 목회하셨던 시대에 맞게 쓰임받으셔서 한국교회가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그분들의 훌륭한 점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에 유효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옛 세대는 강요하지 않고 아랫세대는 잘 분별했으면 한다.

저는 10년 전부터 은퇴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님들도 말년에 많은 아픔을 겪으시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조심스럽지만, 지상에서 주님의 마지막은 어떠셨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 십자가였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수고한 것에 대한 영광과 칭찬은 내려놓고, 아름답고 흥가분하게 떠나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길버트 유 기자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일 해결을 한 달에 남게 드립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J.C Superstar 뮤지컬 단원모집

대상 : 초, 중, 고, 대

고문위원 :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

자문위원 : SBS 생활의 달인, 꾸러기 탐구생활 이상호PD

아이비 유학 Torrance / Irvine / LA shelbykwon65@gmail.com

T.(949)329-8222, (949)864-9162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미디어벽, 벽걸이 포스터, 롤업배너, 현수막

Easter SUNDAY 예수, 부활하셨네

여름성경학교 Vacation Bible School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57>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중동의 선교 현장 이야기 (2)

필자가 시무하는 교회는 사우스베이 지역에 있다. 롱비치와도 가깝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이 주변에는 다민족 교회들이 많아졌다. 이 지역엔 일본계 주민들이 많이 산다. 그들은 2세, 3세까지 이어져 거의 영어권이었다. 그렇게 되니까 영어를 사용하는 필리핀계, 중국계 등과 남미계, 아프리카계, 백인들까지 다양한 인종들이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 아직 유독 한인교회들만이 1세(한국어) 중심의 교회 모습이다.

우리 교회의 대학 청년들은 다민족 연합예배에 잘 참석한다. 어느 뎀 레돈도비치에 있는 필리핀계 교회에서, 또 어느 뎀 롱비치에 있는 이집트인 교회에서 다민족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 다민족이 예배 드리는데 참여하는 것을 즐겁게 여긴다. 그들이 우리의 미래다. 미국의 예배는 저 다민족 리더십들이 이끌 것이다. 불과 몇 년 후다. 한인교회들은 다민족 교회로의 길을 열어야 한다.

그들은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 드리면서 열방을 향한 선교의 꿈들도 같이 꾸기 시작했다. 최근 우리 교회의 대학부에 속한 청년들 2명이 중동 1국으로 학생 선교사 파송을 받고 나갔다. 이미 2명은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 교회에서 예배팀장, 교사 등으로 사역하고 있다.

대학생 선교사들은 1년간 그곳의 장기 선교사 가정들이 돌보아 주며 언어학교에 다니고 친구들을 사귀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일예배를 함께 드린다. 그들은 선교지에서 오전 6시 새벽 기도회 후에 개인 성경 묵상시간을 갖고, 오전에는 언어 학교에 다니며 현지 언어를 배운다. 오후에는 개인 전도로 친구들을 사귀고 저녁에 팀원들이 같이 모여 날마다 저녁 예배를 드리고 취침 전에는 늘 기도회로 마친다.

또한 정기적으로 1개월에 한번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씩 지방으로 가서 가정 방문 전도 활동을 하고, 영혼구원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곳에 있었던 다민족 그저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과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든지, 파티룸으로 어떤 일을 한다든지 하며 살았을 2세대들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된다.

중동의 나라들이 변하고 있다. 그 나라들 안에 다른 중동의 나라들에서 온 학생선교사들이 많아졌다. 미국에서만 한 선교단체에서 파송 받아 이슬람권 나라에 학생선교사로 간 대학생 선교사들이 수십 명에 이른다. 이집트에서도 학생선교사들이 나가고, 레바논에서, 파키스탄에서, 중국에서, 터키에서, 팔레스타인에서, 각 나라마다 학생선교사들이 점점 더 많이 파송 받아 이웃 형제 나라들을 향하고 있다.

유럽으로 난민이 너무 많이 와서 문제라고 부정적으로들 말한다. 처음에는 경제적인 부분, 주거의 불편함의 문제가 크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 난민을 수용한 나라들은 경제도 부흥하고 국가가 살아나고 있다. 지금은 팔시 받는 난민들이 그 나라 지하 자원보다도 더 유익한 인적 자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날 때부터 무슬림이었으나 난민으로 바다를 건너면서 마치고 세례를 받듯이 크리스천이 되었다. 난민을 두려워 말자.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우리의 형제이다.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돕고 섬길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30여 년 전 11월의 어느 날, 걸음을 재촉하던 한 세일즈맨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한 여인이 초라한 폴폴로 어린 두 아이들과 함께 길거리에 앉아 구걸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일즈맨은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보지만 아무 대꾸도 없습니다. 가게로 달려가 빵과 음료수를 사서 권하며 또 사연을 묻습니다. 마음이 열린 여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 놓습니다.

그녀가 풀어 놓는 사연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여인은 사고무친의 고아로 자라 어렵게 시집을 가서 아들 둘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가 간질증세로 아궁이에 넘어져 얼굴에 큰 화상을 입은 뒤 소박을 맞고 두 아들과 함께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살길이 막막했던 여인은 아이들과 함께 거리에 나와서 구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세일즈맨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있구나' 생각하며 두 주먹을 불끈 쥅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지! 나는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이런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야지!' 굳은 다짐을 하였습니다. 사랑과 구제에 자신의 일생을 던지는 삶의 목표를 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젊은 세일즈맨은 시간만 나면 쌀과 반찬거리를 사들고 그 아주머니를 찾아갑니다. 막 4년이 넘어가는 세일즈맨 이력, 이제 겨우 가정을 지킬 만한 수입의 세일즈맨에게 이런 결심과 행동은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섬김과 나눔을 결심한 이 젊은 세일즈맨의 꿈은 실현됩니다. 그는 오늘날 35개국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국제 구호 NGO 월드쉐어

를 통해 세계를 섬기는 권태일 목사입니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걸인을 긍휼히 여기고 돕게 된 것이 권태일 목사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은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다. 자칫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피흘리며 신음하는 사람을 보고 돕고 섬겨야 할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환과 정성을 다하여 돕습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바쁩니다. 각자 갈 길 바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쓰러진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피하여 지나가지 말고 돕고 섬겨야 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돕고 섬김이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섬김이 행복입니다. 섬김이 축복입니다. 섬김의 행복, 섬김의 축복을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가 남긴 보수신학의 유산, 우리가 이어가자”

故 한철하 박사 천국환송예배, 그가 세운 ACTS서 거행



김영욱 총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故 한철하 박사의 천국환송예배가 거행되고 있다.

18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故 한철하 박사의 천국환송예배가 20일 오전 고인이 생전 설립자이자 명예 총장으로 있던 경기도 양평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CTS) 채플에서 거행됐다.

ACTS 김영욱 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선 ACTS 이사장인 최남수 목사(광명교회 담임)가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요한복음 14: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지난 1970년대 ACTS 설립 당시부터 고인과 학교의 기초를 놓았던 손봉호 박사(고신대 석좌교수)가 조사를 낭독했다.

최남수 목사는 설교에서 "故 한철하 박사님의 94년의 삶의 원동력

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한국신학계의 거목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그 역시 삶의 고뇌와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암흑처럼 몰려왔을 때, 그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아마 요한복음 14장 6절을 묵상하며 그것을 그분의 신앙고백으로 삼지 않으셨을까?"라고 했다. 최 목사는 "故 한철하 박사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신학적 유산, 그리고 ACTS의 선교적 유산이 모든 ACTS인들을 통해 계승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사를 낭독한 손봉호 박사는 "박형룡, 박윤선, 한철하 같이 경건한 신앙과 학문적 깊이를 겸한 신학자들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약하고 세속화되어 있을 것"이라며 "아직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신학자, 교역자, 그리스도인이 한국만큼 많은 나라는 전 세계에 많지 않다"고 했다.

손 박사는 "故 한 박사는 학문적 연구의 모형이었다. 어떤 신학적 문제도 그 뿌리까지 파헤치지 않고는 만족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연구자요 학자였다"며 "400여 편이나 되는 논문들도 그렇거니와 1970년에 출간한 '고대기독교사상'은 그런 연구의 대표적인 산물이었다. 25판이나 나올 정도로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그 학문적 깊이와 권위를 인정받는 신학교재가 되었다"고 했다.

국내 복음주의 신학의 선구자이자 세계적인 칼빈신학자로 평가받고 있는,故 한철하 박사는 서울대학교 철학과와 동 대학원 종교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에서 변증학을 전공했고, 버지니아 유니온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Th.D.)를 받았다. 고인은 국내 양대 신학회 중 하나인 한국복음주의신학회의 창립에도 공헌했으며, 아세아신학협의회(ATA), 한국신학대학협의회(KAATS), 아세아칼빈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 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힘모아 코끼리 다리를 고쳐 줍시다!

사누 아르멜(Sanou Armel)!

서부 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에 사는 17세 소년입니다. 5살부터 작은 흑으로 생긴 것이 커지면서 코끼리 다리가 되었습니다!

후원 문의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사누 아르멜(SANOU ARMEL)



인생 성패의 기준

예레미야 17:1-11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성경은 인간이 영과 육으로 구성되었다고 말합니다.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왔기에 육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영에 있습니다. 영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 성공한 인생을 사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1. 악인의 것을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최고로 단단한 금강석 끝 철필로 절대로 지워지지 않게 새겼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지워지지 않게 새겨져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세라는 옷을 입지 않은 형상으로 나무를 깎아 만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음란의 죄를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됩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곳은 텅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일곱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자신들이 잘 가꾸어놓은 생활 터전을 한 톨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도서 2장 26절에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자녀 대대로 잘 살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생활 터전을 마련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시는 자에게 거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저 수고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당장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 살고 있으면서도, 이방인들이 섬기는 아무것도 아닌 금, 은, 목석에 불과한 것을 섬기느라 정신이 없진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상들에게 바치고 절을 하고 복을 빌면서 살아가지도 합니다. 이는 참 어리

석은 인생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모든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다가 그들의 모든 토지와 집과 재물을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헛수고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며 우리는 지옥 가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죄인에게는 노고를 준다고 합니다. 노고는 일하는 고통입니다. 죄인은 몸살 앓아가며 일하게 하시고, 그 결과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사람에게 넘겨주십니다.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은 죄인들이 하고, 쓰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목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우상을 좇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2.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행통

5-6절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마디로 그 인생은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9절에는 악인의 행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지금은 흥통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곧 저주를 받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떨기나무는 나무 그 자체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중에 가장 참혹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자를 떨기나무에 비유합니다. 그는 건조하고 메마른 사막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거할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땅의 대표입니다. 그곳에서 언젠가 잘될 날이 올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의 삶은 다릅니다.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다. 여기에서 ‘의지’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기대를 거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의뢰’한다는 것은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이 있음을 알아 모든 기대를 걸고,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믿고 맡기는 자가 바로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항상 그 잎이 푸르고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물가에서 공급해 주는 수분을 계속해서 받기 때문입니다. 성도 역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삶이 행통하며 은혜의 열매가 끊임없이 맺어지게 됩니다.

3. 악인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

10절에 “나 여호와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기 위해 참아가며 죄를 이기는 자는 그 행위대로 갚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반면에 불의와 죄악을 일삼은 자는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보응하시는 방법으로 자고새의 예를 들입니다. 다른 양치기 없는 새가 몰래 자고새의 동지에 자기의 알을 낳아놓고 가면 이 자고새는 자기가 낳은 알인 줄 알고 지극정성으로 품습니다. 새끼들이 부화해서 알에서 나왔는데, 그 새끼새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도 자고새는 알을 품었기에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돌보게 됩니다. 하지

만 결국에 품었던 새들은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떠나버리게 됩니다. 마치 이와 같이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금고에 넣어서 애지중지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옮겨버리시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임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도가 넘쳐서 불의한 방법으로 소유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 물질이 옮겨질 때 소유자에게 화병만 남기고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 자고새처럼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관하느라고 헛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맡겨 주신 물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요긴하고 선하게 써야 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며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오늘까지의 삶을 주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성공은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힘 있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해야만 가능합니다. 하늘나라를 위한 영적 기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지혜와 은사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참된 성공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 한 국 선 교 설 교 | | | |
|---------------|-------------------------------|--------------|---|
| TV 한국방송 설교 | | 한국 신문 설교 | |
| CBS TV | 목요일 오후 2시 | 경복 기독교 신문 | 3면 설교 |
| CTS TV | 금요일 오전 6시 | 기도원 연합신문 | 3면 설교 |
| 해 외 선 교 설 교 | | | |
| TV 미국방송 설교 | |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 |
| COX TV 워싱턴DC. | 화요일 오후 6시 | 목요일 낮 12시 |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
| | 토요일 오전 7시 | 주일 오후 10시30분 |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
| CTS TV |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 AM1190 |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
| |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 AM1190 | LA 미주 복음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
| 미 국 신 문 설 교 | | | |
| 기독일보 | 5면 설교 | 오프라인 칼럼 설교 |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
| | 인터넷신문 설교 | 온라인 칼럼 설교 | |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8 부활절 특별할인 행사



EVENT 1 | 감사패(임직패)할인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드와 크리스탈재질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해드립니다

Wood \$49 / Crystal \$59

고급 케이스 포함

EVENT 2 | Back Drop

고퀄리티의 배경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해드립니다.

새신자 환영 및 각종 행사용 120x96 스탠드포함 \$299



교회 행사 및 새가족 사진촬영 배경으로 강력! 거치대 무료증정

EVENT 3 | 부활절 배너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 다양한 디자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활절 배너 36x120 \$49 / 부활절 배너 X-banner \$49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사업체를 섬기는



www.junimmedia.com junimmedia@gmail.com 3170 E. 11th Street Los Angeles, CA 90023 323.265.0244

피로야 가라!

피로방지매트

(Prevent Fatigue M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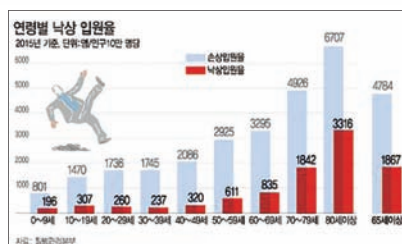
인체공학적 설계를 바탕으로 제작된 피로방지 매트(Prevent Fatigue Mat)로서 일하는 곳 바닥에 탄력적인 표면을 제공하여 서서 일하는 분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현저하게 예방하고 피로로 인한 만성질환에서 벗어나게 해 드립니다.

70%이상 피로 감소, 피로방지, 혈액순환, 하지정맥류 개선, 작업안전 증대, 미끄럼 방지, 충격흡수, 생산성증대, 노동자 보호, 관절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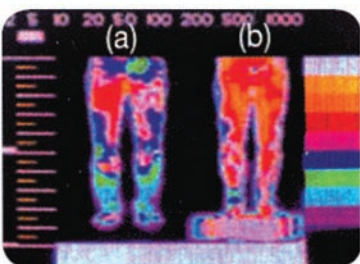
목사님!
목회자
특별향인 레터
편안하게 피로방지매트에서
설교하세요!!!

- 서서 설교하실 때 충격흡수를 시켜 관절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피로를 줄여드립니다.
- 바닥에 앉아 기도하실 때 **기도매트**로 좋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미끄러지지 마세요!!!

- 미끄럼에 의한 골절과 상해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다 아시죠? 미끄럼방지 매트로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 침대 옆, 화장실, 주방, 거실에 설치하면 좋습니다.



열상상선을 이용한 피로방지 매트 비교실험 (혈액 순환 정도와 근육 피로도를 비교한 그림)

- (a) 피로방지 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바닥의 경우
청색과 녹색이 종아리에 몰려 분포되어 나타나 있으며 이것은 현재 근로자가 원활하지 않은 근육활동과 혈액순환으로 피로를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b) 피로방지 매트를 설치 한 경우
붉고 노란색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피로방지 매트의 독특한 인체공학적 설계의 탄력적 특성과 재질로 인하여 근육 및 혈액의 순환이 원활한 상태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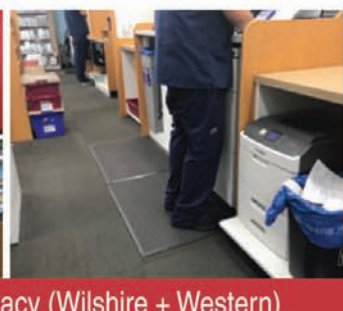
■ 미국판매기념 특별세일

| | | |
|--|--|--|
| <p>E- MAT</p> <p>피로방지용 사이즈 3ft + 2ft \$176 \$123 +tax 30% Off</p> <p>* 사이즈와 모양을 설치 장소에 맞게 만들어 드립니다.</p> | <p>SAFE KOREA MAT</p> <p>사이즈 80cm+40cm \$75 \$60 +tax</p> | <p>NEW SUPER SAFE MAT</p> <p>사이즈 92cm+42cm \$90 \$72 +tax</p> |
| | <p>SAFE MAT</p> <p>사이즈 80cm+40cm \$95 \$76 +tax</p> | <p>SUPER SAFE MAT</p> <p>사이즈 3ft + 2ft \$145 \$116 +tax</p> |

약국, 식당 주방, 가정집, 일반 소매점, 웨일하우스, 메뉴팩처, 디자인 하우스 등 서서 일하는 모든 사업장 자동차 공장 등 산업시설에 근로자 보호를 위해 피로방지 매트(Prevent Fatigue Mat) 설치



CVS Pharmacy (Wilshire + Western)



Hyundai Motors, Kia Motors, GM Korea, Renault Samsung



구입 문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PRO-Z USA Inc.
프로지 유에스에이



제38회 KAPC 서북미노회 정기노회

오직 성령으로 주님 사역 감당하자

KAPC 서북미노회 정기노회 열려

제38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이하 KAPC) 서북미노회 정기노회가 지난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벨뷰중앙장로교회(담임 김요한 목사)에서 열렸다. KAPC 서북미노회는 2018년도 신입원인으로 노회장에 김요한 목사(벨뷰중앙장로교회), 부노회장에 장용호 목사(아이다호한인장로교회), 서기에 신다니엘 목사(벤쿠버중앙장로교회), 부서기에 김대호 목사(시애틀중앙교회), 회록서기에 안영근 목사(올림픽아은혜광장장로교회), 회계에 송준근 목사(시애틀남포제일교회)를 선출했다.

노회에 앞서 진행된 예배는 박은일 목사(시애틀광장장로교회)의 인도로 성종근 목사(타코마반석장로교회)가 기도, 김요한 목사가 설교했다.

김 목사는 “성령으로 행하라(갈5:25-26)”는 제목으로 “비록 성도가 되었을지라도 오늘날 성령의 삶과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며 “우리에게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것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설교했다.

김 목사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과, 교만한 것과, 자만하는 것들은 평화와 질서를 깨뜨리고 어려운 문제를 만드는 요인이 된다. 특히 격동시키는 말은 사람을 분노케 만드는 것”이라며 “오직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을 좇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성령이 주장할 수 있도록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56회 KPCA 서북노회 정기노회

오직 주님의 영광만 구하는 삶 되어야

KPCA 서북노회 정기노회 열려

제56회 해외한인장로회(이하 KPCA) 서북노회 정기노회가 지난 15일, 타코마 새생명교회(담임 임규영 목사)에서 개최됐다. KPCA 서북노회는 이번 노회에서 신입 노회장으로 강요한 목사(유진한인장로교회 임시담임), 목사 부노회장으로 배명현 목사(시애틀영락교회)를 선출했다.

개회예배에서는 배명현 목사의 인도로 최태수 장로(야키마소망교회)가 기도, 변인복 목사(시애틀큰사랑교회)가 설교했다. 변 목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마27:15-2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믿는 자가 십자가를 목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했다’는 은혜에 그 근거를 둔다”고 했다.

이어 “오늘날 성도들이 초기의 신앙 생활 때는 비교적 열심이 있다가 직분을 받거나,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는 까닭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과 같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은 복음과 십자가를 대할 때, 무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변 목사는 “교회는 절대적 진리를 지키는 곳이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일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듯이, 특별히 오늘날 목회자는 진리 앞에서 비겁한 자들이 되지 말고 진리를 위해 명예와 권력과 부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구해야 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예배 후 본 안건에서는 노회장, 목사 부노회장 외에도 장로 부노회장에 김삼수 장로(오레곤벤엘장로교회), 서기에 박일규 목사(야키마소망교회), 회록서기에 최요한 목사(시애틀우리교회), 회계에 최태수 장로를 선출했다. 풀원 기자

애틀랜타 교협 유소년축구대회 주최

제23회 애틀랜타 유소년축구대회가 오는 5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스와니 소재 피치트리 리지 고등학교에서 개최된다.

유소년축구대회는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성구 목사)와 애틀랜타한인회(김일홍 회장)가 공동주최하고, 애틀랜타 어린이축구선교회(전경태 회장)가 주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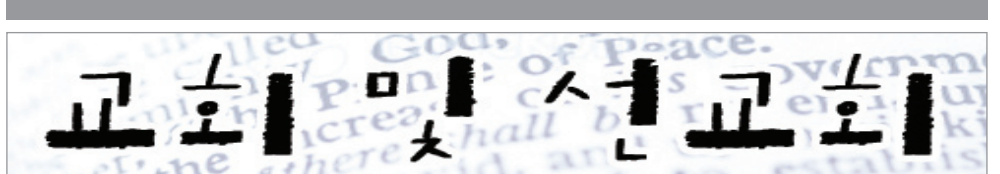
이번 대회는 거주 지역에 관계 없이 일정한 단체의 팀이나 연합팀 구성도 가능하며 장애인들도 참여할 수 있다. 경기방식은 그룹별로 U4(프리카 이하), U6(K-1학년), U8(2-3학년), U10(4-5학년) 등으로 구성되며, 그룹별 리그전으로 진행된다. 경기 결과는 그룹별 리그전으로 동률시 승패, 득실, 다득점, 평균 나이 원칙에 의거해 순위를 정하게 된다.

참가비는 프리K 이하인 U4팀은 100달러, 나머지 팀은 200달러로 대회 시작 전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은 통일된 유니폼을 입고 축구화와 발목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골키퍼는 별도 색상의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

전경태 회장은 “한인회와의 공동주최 의지를 김일홍 한인회장에게 전달했다. 올해 50주년 행사를 준비하는 한인회가 차세대 지원방안으로 이를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6월 러시아 월드컵 대회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주변의 다민족 팀의 참가를 유도하고 있으며 유소년 전도와 선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회 시상식은 각 그룹별로 경기를 마친 후 개별적으로 거행되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메달이, 단체상에는 팀별 트로피가, 개인상에는 트로피와 부상이 수여되며 단일팀과 우수선수 연합 2개 팀으로 동남부제전에 참여할 예정이다. 문의) 678-362-7788



LA 지역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밀중학교 / 토요일-17와 비몬트 크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단사를 뿌려내기, 이단기정음치료하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장태원**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1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 #412 (6가와 카탈리나)
T.(213)909-6473 / www.missionla.org

주일예배 오전 10:00 **김성식** 담임목사
목요일예배 오후 7:30

LA백송교회
역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형통의 축복을 받자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213)245-6616

주일예배 오전 10:50 **씨니킴** 담임목사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목 7:00
금요일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일 아침예배 오전 8:00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323)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강진웅**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종교동부 오후 12:45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새신앙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가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서건오**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종교동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일한국교회 토 오전 10:00-오후 1:00
한어침년부 오후 1:30 오병이어 화 오전 11:00-오후 6:00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이 넘치는 교회, 복음을 알리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i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박현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침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김민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종교동부 EM 오전 11:00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대예배 1부 : 7:45 am (1월) 새가족성경공부 (3월) : 12:30 pm - 1:00 pm
대예배 2부 : 10:35 am (1월) 청년인성경공부 (3월) : 1:00 pm - 2:00 pm
유초등부 : 10:45 am (3월) 금요찬양 : 6:45 pm (1월)
새벽기도 : 화-토요일 5:50 am (1월)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www.lasehil.com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4-8690, (213)382-7240 Email: lasehil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3과 First Baptist Church 안에 있음-2차)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시 **박은중** 담임목사
주일오후예배 오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주일 1부예배 (분명)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분명) 오전 11:00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명)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예배(말씀예배) (소매비) 오전 11:00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할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뉴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박호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여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종교동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지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청운교회
선교에 효를 소, 친초 정진의 효를, 바른교회관의 효를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민종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콜라세(Callng), 그리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troll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곽부한**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종교동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이순환** 담임목사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사랑과 화평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종교동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경 선포 새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주일기도주일 오전 9:15-10:00(주일)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일알렐야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장주영 담임목사

뉴스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빙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일침묵과 기도 오전 10:00-오후 1:00

김성수 담임목사

무리아타 한인장로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신앙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종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침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 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경대림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빛이여 영광 받으라 (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전 12: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 (310)715-9902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성경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승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침묵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월-금) 오전 6:0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 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중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기대연설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부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세기총 직전 대표회장 황의춘 목사(왼쪽)가 신임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에게 시기총 기를 전달하고 있다.

“한국교회 연합에 밑거름 될 것”

세기총, 정서영 신임 대표회장 취임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이하 시기총)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취임감사예배가 16일 오전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진행됐다.

상임회장 최낙신 목사의 사회로 시작 된 예배는 상임회장 원종문 목사의 기도 와 공동회장 박광철 목사의 성경봉독(출애굽기 19:3-6), 돌레사모합창단의 찬양에 이어 장종현 목사(백석대 총장)의 설교로 진행됐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장 목사는 “오늘의 시대는 물질적으로 풍부하지만 교회가 영적인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기에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며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의 종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증경대표회장 고시영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직전 대표회장 황의춘 목사의 이임인사와 신임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의 취임인사 및 깃발 인수인계 순서가 진행됐다.

신임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부족한 사람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면서 “세기총은 750만명 디아스포라와 함께 국내외에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올해에도 미국, 일본 등 각처에서 통일기도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회장은 아울러 “해외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도 관심을 가지고 도울 것이다. 시기총은 지난 5회기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광장히 성장했는데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으며 특별히 시기총이 시기적으로 한국교회의 연합을 이루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초대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와 증경대표회장 김요셉 목사가 격려사를 했고, 한기연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와 미기총 대표회장 황경일 목사, 재일한국인기독교연합회 직전 회장인 이병용 목사, 유럽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김호동 목사가 축사했다.

김진영 기자



한동대 전경 ©한동대 제공

“인권위는 한동대 건학이념 존중해야”

나비행동, 인권위 조사 관련 논평 발표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환 박사, 이하 살롬나비)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한동대학교(총장 장승훈)를 조사한 것과 관련, 19일 논평을 발표했다. 최근 한동대 학생 4명은 동성애, 성매매, 다자간(多者間) 사랑(Polyamory, 여러 남녀가 동거하면서 함께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행위)을 선전하는 세미나를, 학교의 징계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 이후 학교는 이 학생들을 무기정학 등으로 징계했고 국가인권위가 이 문제를 조사 중이다.

살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학원의 자율성, 학원 건학이념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기독교 사학인 한동대도 학생들에게 기독교적 가치관에 배치되는 내용의 공적 발표를 금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진정한 교육에는 징계와 이에 대한 순종, 개선과 용서가 있어야 한다”며 “한동대가 한국사회와 그 학생의 미래를 위해 어렵지만 올바른 교육을 하기 위하여 옳은 결단을 했다고 본다. 요즘 학교에서는 교권이 완전히 무너져서 제대로 교육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에서도 학생의 인권만 주장하지 교사의 인권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망하기 마련”이라며 “한동대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온 마음으로 진심어린 박수와 지지를 보내드리고 싶다”고 했다.

또 “대학에서는 이러한 집회는 대학의 정체성과 집회 규정을 심하게 위배하는

행위로서 집회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사전에 분명히 경고하였다”며 “그런데 모임을 주도한 학생은 대학의 정체성에 심하게 도전하였고, 집회 규정을 위배하였으며, 교수에 대하여 불손한 행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자간 사랑의 부도덕한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학생에 대한 무기정학 징계는 학교 당국으로는 교육적으로 불가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마약 복용이나 알코올 중독 선전을 용납할 수 없듯이 동성애 선전은 허용될 수 없다”며 “동성애 행위는 도착된 성행위로서 건전한 공교육기관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되는 것은 교육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마약 복용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도둑질, 사기(詐欺) 방식 등이 공공장소에서 가르쳐질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했다.

살롬나비는 “국가인권위는 동성애자들의 비윤리적 인권을 두둔하고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의 한동대 간섭은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헌법 제20조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인권이란 미명 하에 윤리도덕을 무너뜨리겠다는 태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건학이념에 충실한 기독교대학을 지원하며, 기독교 정신에 충실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다 국가 기관의 부당한 압력을 받는 한동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건학이념에 입각한 교육 정신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랜디 아네트, 케이시 아네트 선교사 부부 ©남침례회 국제선교사사회(IMB) 제공

콩고 선교사 부부 교통사고로 순직

남침례회 파송 미국인 선교사 부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사역하던 미국 미주리 출신의 선교사 부부가 교통사고로 순직했다.

랜디 아네트와 케이시 아네트 선교사 부부는 남침례회 국제선교사사회에서 파송되어 현지 사역단체인 콩고 포 크라이스트(Congo 4 Christ)와 동역해왔다.

엘라매마 뱀티스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선교 세미나를 진행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이같은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제프와 바바라 심어맨 선교사 부부와 현지인 친구이자 운전사였던 장 루이스는 부상을 당한 상태다.

심어맨 선교사 부부는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콩고 포 크라이스트는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상심한 모든 가정들을 위해, 특별히 아네트의 딸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랜디와 케이시 아네트 부부는 서아프리카 토고에서 사역을 해 왔으며, 아이보리코스트에서 지냈다. 랜디 선교사는 2004년부터 국제선교사사회 지역 대표를 맡아왔다. 이사회는 페이스북에 "아네트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을 위한 기도에도 동참해 달라. 또한 우리가 소망없이 슬퍼하지 않는다(살전4:13~18)는 사실 안에서 안식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性은 2개뿐” 교실에서 쫓겨나

인디애나대 남학생, 학생윤리위에 회부

미국 펜실베이니아 인디애나대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수업 중 “성(性)은 오직 2개뿐”이라고 말했다가 교실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다.

미국 크리스천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이 학생은 교수와 학생들에게 사과를 하기 전까지 수업에 들어올 수 없었다고 한다.

엘리슨 다우니 교수는 ‘기독교 481: 자아, 죄, 그리고 구원’(Self, Sin and Salvation)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파울라 스톤 윌리엄스 목사의 TED Talk 영상을 보여주었다. 오랫동안 목회 사역을 해 온 파울라 스톤 윌리엄스 목사는 작년에 커밍아웃하고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인물이다. 영상이 끝난 후 그녀는 학생들에게 ‘백인 남성들의 특권’, ‘인력 배치’, ‘남성 성차별’ 등에 대해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자, 종교학 전공자로 5월 졸업 예정인 레이크 잉글(Lake Ingle)이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앞서 다우니 교수가 언급한 ‘7개 젠더’에 대해 도전하며, 오직 ‘2가지 성만 존재한다’는 생물학자들의 공식 입장을

언급했다. 그러자 교수는 그에게 교실에서 나가달라고 말했다.

하루 뒤, 잉글은 ‘무례한 주장과 인용을 하고, 말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는 학생들에게 사과하라는 요구도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이후 잉글은 티모시 모어랜드 교무처장으로부터 그가 수업을 방해해서 학교 정책을 위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우니 교수의 수업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받았다.

잉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우니 교수는 조직신학 박사이며 특히 기독교 여성신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분이다. 그분이 여학생들의 의견을 더 선호했기 때문에 나를 수업에서 제외시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우니 교수가 지적 능력을 남용했다고 비난했다.

학교 측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 3월 9일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그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혜진 기자

영국 교인들 25% 가정 학대에 노출

‘인 처치스 투’ 보고서 발표돼

영국 교인들 가운데 4명 중 1명이 가정 학대에 노출돼 있다는 새로운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14일(현지시간) 발표된 ‘인 처치스 투’(In Churches Too) 보고서는 “컨벤트리대학교와 리체스터대학교 연구팀이 컴브리아 전역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438명의 교인들 중 109명이 최근 관계성에서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회에서 학대에 대해 잘 대처했다”고 응답한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2%였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젊은 성인들보다 학대를 덜 경험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심각한 형태의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벤트리대학교의 크리스틴 온 교수는 “가정 학대는 교회에서도 역시 일어났다. 25%의 사람이 배우자에게 물리적, 성적으로 학대를 받고 감정적인 조종을 당하거나 돈을 빼앗긴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10~20년 학대를 경험한 여성이 12명, 현재 관계성에서 삶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여성이 6명이었다”고 밝혔다.

리체스터대학교 레베카 바니스 박사는

“최근이나 혹은 이번에 한 번이라도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이들은 42%였다”고 덧붙였다.

잉글랜드 중서부 칼라일에서 사역하는 제임스 뉴컴 주교는 “교회는 이에 대해 할 일이 많다”면서 “컴브리아 교회는 수년 전부터 이같은 보고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연구에 부분적으로 참여해왔다”고 전했다.

그는 “많은 교회들이 훈련에 참여하고, 전화상담을 늘리고 지역 서비스센터와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 이것이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핵심적인 사역이라는 이해 안에서 장기적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가 반드시 스스로를 살펴봐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때”라고 말했다.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에 반대하며 전 세계의 교회를 돕고 있는 리스토어드의 랜디 마샬은 “이번 보고서는 하나님의 경고음”이라며 “교회는 모든 공동체의 가장 필수적인 자원이며, 피난처이자 깊은 변화가 일어나는 장소이다. 교회 내에서 가정폭력을 언급하는 것은 중요한 첫 단계”라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9:3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MP서울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18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8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 (818)363-5887 Tel: (323) 837-0900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gmail.com

O.C. / 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중)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EM*영아예배 주일 오후 1시 30분
수요기도모임 오후 7시 30분
토요새벽예배 6시 30분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Nachiban Church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562)691-0698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설가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월-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생인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오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민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들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동맹) 장년부 수요양양기도회 오후 7:30
FAM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오전 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영광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7시(수) 제자서서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8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토)

람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주일학교 오후 1시 20분
3부예배 오전 11시 20분 영아예배(EO) 오전 9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새 사람을 일으켜 (엡4:24)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L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남가주 벨엘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동역자를 찾습니다

- 1. 찬양 사역자
- 2. 유초등부 전도사

제출서류 : 이력서 1통

제출기한 : 2018년 3월 31일 까지

Email : info@bethelchurchsoca.org

교회 주소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이력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남가주벨엘교회 BETHEL CHURCH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프리미엄 크루즈의 특별한 축제를 함께 즐기세요~

한국문화원 대한노인회 미주총연합회

초대형 럭셔리 크루즈 프린세스 에메랄드

푸른투어 북태평양 (빅토리아) 크루즈와 캐나다 로키를 함께... 9일 \$1,790 ▶5월9일

- 모든 스포츠 시설 무료 이용 [실내 외 수영장, 조깅트랙, 휘트니스 센터, 스포츠 코트 등]
- 문화 시설 무료 이용 [대극장, 카지노, 다양한 라운지&바, 미팅룸, 도서관, 인터넷 카페, 아트 갤러리]

▶ 로스앤젤레스-빅토리아-밴쿠버-자스퍼-밴프-캘거리-로스앤젤레스

1) 안달훈 한국기원 프로9단 동행 바둑강좌 및 다면기 대국
2) 부모님과 함께 효도 여행을 떠나보세요. 어르신들과 자녀분들을 위해 유익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디케어 세미나 / 대학 학자금 세미나 / 소액 CRA LOAN 세미나

213.739.2222 3170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www.prttour.com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위한 제25회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3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하므로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섬겨주실 봉사자와 동역자 구합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장소 : 중앙장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시간 : 2018년 6월 16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L,C,D

협찬

나성열린문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가주처과 대표 오득재 원장, 마동환 변호사 그룹, 팔가순대
뉴욕제과, 한솔종합보험, 한인동포재단, OC 한인회
행복재단(한영재), 라이온스클럽, 올림픽 칼국수, M,G,M

후원 기독일보, FH미션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 (213)870-8474/ Fax:(323)870-5522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사람을 아끼는 지혜



강준민 목사
세생명비전교회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막8:36). 사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사람을 아끼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사람을 아낀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아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아깁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돈을 아깁니다.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몸을 아깁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시간을 아깁니다. 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책을 아깁니다.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아깁니다.

사람을 아낀다는 것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낀다는 것은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릇을 아끼는 사람은 그릇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약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자신이 연주하는 약기를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화가는 자신이 사용하는 붓을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우리가 아끼는 것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은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다루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입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대상을 결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아낀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잘 지킵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돈을 잘 지킵니다. 슬프게도 돈을 사람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희생합니다. 가족을 희생하고, 주위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잠4:23). 왜냐하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계1:3).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아낀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키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깁는 키웁니다. 우리는 아끼는 것을 키웁니다. 자녀를 아끼는 사람은 자녀를 잘 키웁니다. 돈을 아끼는 사람은 돈을 키웁니다. 사업을 아끼는 사람은 사업을 키웁니다. 교회를 아끼는 목회자와 성도는 함께 교회를 키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낀 까닭에 3년 동안 교육을 통해 그들을 키우셨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키우는 은총의 도구입니다. 저절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부모님을 통해 훌륭

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좋은 스승을 만나서 소중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영적 안배자들을 통해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만남을 주선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좋은 만남을 통해 성장합니다. 사람은 탁월하신 하나님, 훌륭한 스승, 좋은 책, 그리고 때에 적합한 교육의 기회를 만날 때 성장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키운 제자들을 더욱 잘 키우기 위해 자신보다 더 훌륭한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만남을 주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성령님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므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사람을 아낀다는 것은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잠재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재능과 은사를 의미합니다. 그런 까닭에 아끼는 사람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재능과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관찰해서 말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대상이 스스로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는 중에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람을 아낀다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길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람을 아끼기를 늘 기도할 것입니다. 살람.

당신은 어떤 교사가 되기 원하는가 (5)



제이슨 송 교장
새연약초중고등학교

창세기 3장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한 타락 사건을 기록한다. 이 안타까운 사건의 발단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곁에 있던 하와에게 뱀, 곧 사탄이 다가간 것이었다. 성경은 사탄이 하와를 미혹했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사탄은 하와가 죄를 짓도록 가르치거나 설득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되어 의문을 품은 만한 질문을 던지고 몇 가지 거짓말을 들려주었을 뿐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하와에게 있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기억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창2:16-17)”

하와는 아마도 선악과에 대해 자신의 배필인 아담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전했을지는 모르지만, 하와의 머릿

속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 제대로 심겨져 있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 가운데 사탄의 거짓말이 파고들 빈자리가 있었다는 말이다. 사탄의 목표는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향해 날마다 자신의 주무기인 ‘거짓말’을 발표한다. 그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지 않을 때 벌어지는 비극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

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고후11:3)”

거짓과 비진리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삶과 신앙에 파고들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빈 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참된 것과 진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다는 말이다.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을 때,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배우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에너지를 관리할 기준과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육신의 재미와 욕구 충족을 위해 온갖 중독도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탄에게 미혹된 인간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성경의 진리보다 더 높게 여겨지는 이론 및 사상으로 마음을 채워왔다(고후10:5). 이것을 깨뜨리는 길은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뿐이다(롬12:2).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진리로 충만해야 한다.

참된 지성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박성근 목사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

스티븐 호킹이 지난 14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슈타인 다음으로 널리 알려진 석학이요 천재 과학자였습니다. 특히 루게릭 병이라는 질병을 안고 있음에도 55년간 수많은 업적과 일화를 남겼다는 면에서 그는 분명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쉬움이 있는 것은 그가 가진 신앙관 때문입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2014년 엘 문도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무신론관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서, 하나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를 창조한 자도 없고 우리의 운명을 다스릴 자도 없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천국이나 내세가 없음을 깊이 인식하게 했다. 우리는 광대한 우주의 디자인을 감상할 수 있는 단 한번의 인생을 살고 있으며, 나는 그것에 대해 감사한다.” 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뇌는 부속이 망가지면 작동이 멈추는 컴퓨터라고 나는 본다. 망가진 컴퓨터를 위한 천국이나 내세 같은 것은 없다. 그것은 어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동화에 불과하다.”

우주의 생성과정을 연구하고 그 광대한 우주의 디자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창조자를 부인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그 정교한 별들의 운행과 조직이 어떻게 우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그가 언급한 작동이 멈춘 컴퓨터는 어떻게 그냥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것 자체가 비논리적인 듯 합니다. 어떤 미디어는 “스티븐 호킹, 우주로 떠나다”라고 뉴스의 제목을 잡았습니다만, 그가 우주의 어디로 떠났는지가 궁금합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잠1:7). 참된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위대한 천재가 하나님을 부인해도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망가진 컴퓨터가 아니기에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과학이 무서운 속도로 발달하면서 우리의 영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속에 무신론적 사상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말씀 신앙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신간 도서

당신의 신앙 점수는

김홍만 | 생명의말씀사 | 112쪽

믿음의 기초가 바르게 놓여 있는지 차분히 돌아보고, 말씀 앞에 나의 구원과 신앙의 모습을 겸손하게 점검해보는 책이다. 책 속 60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던 기본적인 믿음의 뿌리를 확인하고, 가장 기본적인지만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던 신앙생활을 다시 진단받으며 영적 갱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추천 도서

수많은 전도 실패의 경험으로 <새가족반>을 만들었다

[인터뷰] '새가족반' 저자 이정규 목사를 만나다

"이 책은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 전체를 통해 인간을 사랑과 행복으로 이끄신 이야기입니다. ... 저는 힘을 다해, 제 생각에는 새가족들이 성경의 배경지식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극한까지 기독교 신앙의 필요로움과 영광스러움을 이 책에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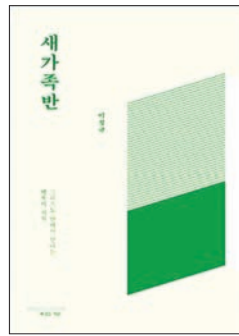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아근하는 당신에게> 등을 쓴 이정규 목사(시광교회)가 <새가족반>을 발간했다. <새가족반>은 교회 개척 후 7년 동안 성도들과 희로애락을 같이 하며 '새가족'들에게 개인 혹은 소그룹으로 강의했던 내용을 묶었다. 삼위 하나님과 행복을 중심 키워드로 창조(가족)의 초대와 죄(거절), 구원(회복)과 신자의 삶(새로운 가족) 등 4부분으로 나눠 설명하면서, 12주 동안 교회 현장에서 새신자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자는 신 존재 변증보다는 막연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모르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한 내용을 핵심으로 삼았다. 이 책의 집필은 "교회에 들어온 새가족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부요하고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고 자랑함으로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대신, '쉽게 기초한 가르쳐 준다'는 명목 하에 기독교 신앙을 대충 가르치고 온갖 봉사와 윤리적 실천으로만 새가족들을 내몰아 버리는 세태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다. 다음은 저자와의 일문일답.

-이 책은 쉽나요?

독자들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루는 범위가 쉽고 물으시면 그렇진 않습니다. 첫 장부터 '삼위일체'가 나오고, 중간에 구원과 죄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루는 범위를 쉽게 설명했느냐고 물으시면,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는 정도까지는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독특한 것은 새가족들도 부류가 있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가 옮겨서 처음 오신 분들은 오히려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최근 전도한 친구는 삼위일체 부분을 전혀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삼위일체 같은 부분이 '어려운 교리'라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나오면 지레 겁부터 먹는달까요. 그런데 책의 첫 장만 '삼위일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새가족반>에는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끝까지 가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새가족반 이정규 복있는사람 | 332쪽

지금까지 받은 피드백도 '어렵다'가 대세는 아니었습니다. 통전적 이야기이고 드라마라고 한 것처럼, 어려운 교리를 쉽게 풀었다고들 하십니다.

-골격은 기존 '사영리'와 비슷한데요.

제 신학은 사영리가 담고 있는 신학과 조금 다릅니다. 사영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것들이 가진 강점이 있고,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까.

제 책은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서문에서도 밝혔지만, 불신자들이 다 같지 않습니다. 실제 전도하는 입장에서는 격렬하게 예수님 믿는 것을 반대해서 끌어줘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믿고 싶은데 뭘 알아야 하는지 묻는 사람들도 있으며, 오래 다녔지만 신앙의 기초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새가족이 온다면, 대부분 이러한 부류입니다. 새신자인데 아무것도 모른다거나,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꽤 쉬웠고 교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거나, 교회를 옮겨서 새롭게 등록했다거나, 세 가지입니다. 저는 세 부류를 다 보았습니다. 첫째 부류라 해도 간단히 가르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어차피 다시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류는 교회에 적응돼 있을 뿐, 모르는 건 같습니다. 셋째 부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재정립해서 가르쳐 주면 교회 생활을 출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이렇게 구성했는데, 독특하게도 첫째와 둘째 부류는 어려워하지 않고 쉽고 재미있게 배웁니다. 그런데 셋째 부류가 오히려 어려워 합니다. 하지만 감동을 받으면 더 많이 받습니다. 대강 알았던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신자들이 가장 받아들이거나 믿기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죄'였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

길 힘들어 했습니다. 원래 '죄'는 새가족반 운영한 차례 강의에 불과했으나, 설명해서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길어져서 세 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죄인인 건 맞지만 지옥에 갈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 내가 (죄값을 치르러) 지옥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이 대화의 주 소제였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지난 7년간 새가족반을 직접 이끌었는데, 의외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질문을 연구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옥에 가겠다고 한 분에게는 뭐라고 답하셨나요.

몇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기가 '내가 엄마 젖을 빨지 않고 자립하겠다'고 한다면 말이 되겠냐고 합니다. 설사 지옥을 가더라도, 우리의 죄가 보속(補贖)되는 게 아닙니다. 내 딸을 죽인 사람을 찾아가서 죽인다 해도 딸이 살아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죄는 하나님 아들의 죽음으로서만 갚아질 수 있고, 십자가가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려면 죄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기 위해 '내가 죄를 처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을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책은 제가 만난 수많은 새가족들과 나눈 이야기가 도움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을 쓰기 위해 수많은 전도를 실패했어야 했습니다. 실패한 경험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기억나는 경험은 흥대생 2명이었는데, 교회는 안 다니겠지만 성경은 배우고 싶다고 해서 흥대까지 매주 한 번씩 갔습니다. 밤을 사주면서요(웃음). 진짜 많은 질문을 했고 대답해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느 날엔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책을 쓰는 데는 도움이 됐습니다. 이 책에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았텐데'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과 어떻게 말해야 하고 이야기해야 하고 들어야 하는지 공부가 됐습니다. 제게는 모두 선생님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분을 우리도 함께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너무나 압도적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해낸 책이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뭐가 말씀드리자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 글을 읽고서도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웅 기자

힐링기도

강은혜 | 두란노 | 288쪽

'문제는 내 안에, 답은 예수님 안에 있다: 고통과 상처에서 자유와 평안의 삶으로' 성경 말씀을 기초로 저자의 영적 체험과 다른 사람의 경험, 이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를 참고하여 내용을 엮었다. 온누리교회 기독교에서 영적, 정신적, 정서적 어려움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면서, 치유가 관심을 깨달은 저자가 들려주는 힐링기도의 힘을 만나 볼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빠졌을 때

전문우 | Freepok 그림 · 사진 | 누림북스 | 316쪽

지독한 우울증을 극복한 독서자의 열정적 기록. 저자는 우울증을 이기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고 치유를 경험했다. 세계 명작부터 우울증을 집중적으로 다룬 인문서, 그리고 영화와 뮤지컬, 노래 가사까지 장르를 아우르며 책이 가진 치유의 힘을 보여준다. 아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 모두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를 전한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우울증으로 아파할 때', '돕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준다.'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귀국자동차 운송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빠른 송금·환전 빠른 송금·환전

미국 <.....> 한국 ₩

7 Days 24 Hours T.(213)400-6363

CD PRINTING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엮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치아 파우더 3달분 \$60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www.sellacare.com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세트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서울대학병원/암센터내 샐 고려대 안암병원내 샐 입점

혈액 · 혈관 · 기운 · 면역

-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 데 있습니다.

산성 3.5 6.0 7.0 8.5 9.0 9.5 알칼리성 10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제3차 아르메니아 정교회 기념교회의 조각. 쓰러지신 예수님의 모습.



제4차 모자 상봉 조각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66)

주님께서 가신 비아 돌로로사의 14처 (1)

슬픔과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Via Dolorosa)는 비아(길)와 돌로로사(고난, 슬픔, 탄식)로 이루어진 표현이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고난의 길을 말한다. 전체적으로 이 길은 약 700m 정도 되는 길로 내리막길과 오르막길로 구성되어 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길에 대한 전승을 만들어 순례객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케 하는 의식을 만들어 놓았다. 비아 돌로로사에는 총 14개 장소가 있어서 각 장소마다 주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기념물들이 있다. 제1처에서는 30kg과 50kg 두 종류의 십자가를 빌려주어 순례객들이 직접 십자가를 지는 체험도 해 볼 수 있다.

이번 호에는 제1처부터 제5처까지를 방문해 본다.

제1처 선교 교회와 채찍질 교회

관정 안에서 채찍질을 당하신 주

님은 오전 9시쯤 고난 당한 몸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 밖 서북쪽에 위치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오르기 시작하셨다. 작열하는 태양은 올라가는 길가의 상점들과 주택들의 처마를 뚫고 채찍질로 온몸이 찢긴 예수님의 육신을 사정없이 내리친다. 육신이 상할 대로 상한 그리스도는 군병들의 채찍질과 고통소리 그리고 군중들의 소란한 소리를 뒤로 하고 처형장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제2처 에케호모

선교 교회에서 나와 오른쪽으로 방향을 잡아 십자가 지고 가신 길(폭 3m 정도)을 따라가면 채찍질 당한 곳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아치가 하나 있다. 사람들은 이 아치를 가르쳐 '에케호모(Ecce homo)'라 한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빌라도 총독이 말하였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라 하매(요19:5)" 성경

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장소이다.

오른쪽 벽에는 라틴어 'VIA DOLOROSA'라는 길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계속 길을 따라 낮은 내리막길을 향하여 가자.

제3처 처음으로 쓰러지신 곳

내리막길의 끝에는 치즈골짜기(중앙골짜기)가 있다. 이 골짜기는 옛 예루살렘 성의 동서를 나누는 계곡이다. 남쪽에는 통곡의 벽이 있고 북쪽으로는 세계 문(다마스쿠스 게이트)이 있다. 삼거리 지점을 이루는 이곳에서 주님은 힘이 빠지셔서 결국 첫 번째 쓰러지셨다.



서병길 목사
전 GMS 파송
이스라엘 선교사
폴리신학교
선교목회학 박사

바로 이 지점에 1856년 처음 건축되었다가 1947-48년에 다시 수리된 아르메니아 정교회 기념교회가 있다. 그리고 쓰러지신 곳을 나타내는 자그만 조각이 교회 벽에 부조되어 있다. 길바닥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붉은색 통돌이 있다. 이 돌을 '박석'이라고 한다. 재판정에 있는 돌들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요19:13)

그 옛날 예수님이 쓰러지신 바위가 지금도 남아있다는 감격에 순례객들은 눈시울을 적실 수밖에 없다. 지금 이곳은 아랍시장이 되어 매우 분주하고 소란스런 곳이기도 하다.

제4처 모자 상봉

제3처에서 약 30m 쯤 지나서 왼쪽으로 보면 가게 사이에 아르메니아 정교회의 작은 문이 있다. 이 문 위에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상봉하는 조각이 새겨진 장소를 볼 수 있다.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이다.

아들의 고통을 바라보는 어머니

에게 "염려하지 마세요" 응답하는 듯한 아들의 모습이 애처롭다.

제5처 구레네 시몬

다시 약 15m 쯤 나아가면 비아 돌로로사와 엘 와드 길의 모퉁이에서 오른쪽으로 길이 꺾어져 오르막 길을 향하는 길로 나간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 행렬을 구경하다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된다.(막15:21, 눅23:26) 억지로 진 십자가. 그러나 시몬은 시골사람에서 일약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되었다.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이다.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은혜의 길이였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이 일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큰 업적을 남겼다 한다. 1895년에 지어진 자그마한 가톨릭 교회(프란체스코)가 있어서 순례객들이 기도하고 가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계속)



제5처의 가톨릭교회 안에서는 구레네 시몬을 만날 수 있다.



비아 돌로로사 길을 가리키는 석판. 옆에는 이곳이 제5처임을 가리키는 숫자가 쓰여 있다.

미주 크리스천 신학 대학교(원) 신입생, 편입생 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 1)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 총회(미주내), 개혁신학교 한미 연합 총회(한국과 미주)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80%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 213-272-6031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 M.A 석사과정 | 48학점
-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합(진리의길)
알(학문의 길)
삼(십자가의 길)

Los Angeles 목회자영성집회 및 성령컨퍼런스

성령이 교회를 떠나면 남는 것은 종교뿐이다.

성령과 기쁨
Holiness and the Spirit

2018년 4월 3-4일 (화,수)

화 | 4:00pm-10pm
수 | 9:30am-12:00pm
(무료등록, 저녁, 점심제공)

장소: 오직예수선교교회 (생신목사사무,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3407 W. 6th st. #103. Los Angeles, CA

평신도를 위한성회

2018년 4월 4일 수요일 오후 7시
장소: 나눔과 섬김의 교회 (담임목사: 엘리야 김 목사)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강사: 이상목 목사
목회자성령컨퍼런스 주강사 (한국, 미국, 캐나다, 남미, 동남아 등)
목회자영성회복 주강사
팬실베니아 Erin 한인 장로교회 담임
KAPC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 남부노회

집회문의:
213)272-6031
213)219-1187
201)944-9777

에스더유 전도사
562)896-3212

개혁신학교 한미연합총회
후원: 남가주한인목사회, 남가주여성목사회

폴란드 탈공산화 위한 기독교의 노력, 그리고 북한 순교자의 소리, 마체크 월코스 목사 기자회견

“북한에서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북한 주민의 자유를 앞당기려면, 먼저 북한 주민이 자기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랑하도록 남한이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이 계속 강해져서 스스로 탈공산화 운동을 일으키도록 도와야 합니다. 폴란드가 하나님의 때에 전 세계 기독교인의 기도 응답을 받아 평화적으로 공산주의가 제거된 것처럼, 남북한도 하나님의 때에 평화적으로 하나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국내외 폴란드인 주도의 탈공산화 운동을 비롯하여 1989년 폴란드 공산주의 몰락 전후 역사의 산 증인인 마체크 월코스 목사(Maciej Wilkosz)가 방한해 남북통일을 위한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선교사, 동유럽과 구소련 지역의 교회 개척 등으로 활동한 그는 현재 폴란드 순교자의 소리 대표로,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에 관한 강연 사역을 하고 있다.

또 폴란드 국영 방송에 정기 출연하고, 폴란드 정치인들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박해 받는 교회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월코스 목사는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루터라이스대학 및 신학대학원에서 리더십 분야 석사 학위를 받았고, 폴란드 크라코우의 야기엘로니아 대학교(Jagiellonian University)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또 폴란드 하나님의 성회에서 목사로 안수받았다.

월코스 목사는 15일 서울 마포 한국 순교자의 소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17일에는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탈북 기독교인을 위해 운영하는 ‘유유선교 학교’(Underground University)에서 비공개 강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국과 폴란드의 역사적 유사성

“하나님은 역사를 사용하십니다. 두 나라의 역사적 유사성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서로를 통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월코스 목사는 “한국과 폴란드 모두 한때 영광의 시대를 경

험했고, 수많은 희생을 치르는 탄압의 시대를 겪었으며, 20세기에는 가장 많은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폴란드는 넓은 영토를 소유한 지역 강국으로, 러시아보다 더 힘이 강했고, 약 1000년 전 남북한은 신라와 발해로 만주, 연해주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하지만, 1772년부터 폴란드는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으로 분할되면서 사라진다. 한국도 1910년부터 35년간 일본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다가 독립한다.

20세기 두 나라는 제1, 2차 세계대전 및 공산주의의 탄압과 위협이라는 가장 유사한 시기를 지나왔다. 폴란드는 1차 세계대전(1914~1918) 기간 국토의 90%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 80만 명이 사망했고, 구소련과의 전쟁(1919~1921)으로 6만 명이 사망했다. 또 2차 세계대전(1939~1945)에는 600만 명이 희생됐고, 반공산주의 내전(1945~1953)으로 3만2천 명이 전투, 사형, 투옥 등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오늘날, 폴란드는 공산당 통치 및 소련 지배(1945~1989)에서 벗어났다.

한국은 일제 식민 통치 및 2차 세계대전(1910~1945)으로 27~81만 명이 사망했고, 한국전쟁(1950~1953)으로 220만 명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 됐으며, 북한 내에서는 극심한 탄압(1945~현재)으로 210만 명이 사형, 강제수용소, 기근 등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월코스 목사는 이어 2차 세계대전 후 폐허가 된 폴란드 바르샤바의 사진과 한국전쟁 후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을 비교하며 “두 나라 모두 희망이 보이지 않던 잿더미에서 일어났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저는 폴란드가 평화적으로 공산주의에서 벗어난 과정을 눈으로 본 증인으로, 북한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 한국을 찾았다”고 말했다.

폴란드 공산 정권 아래에서 성장한 폴란드 순교자의 소리 대표 마체크 월코스 목사는 15일 한국 순교자의 소리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 북한의 상황을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일 수 있



폴란드 공산정권 아래에서 성장한 마체크 월코스 목사(좌)는 공산주의의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역할을 평생 연구했다. 이날 월코스 목사는 “폴란드와 북한은 공산주의라는 역사적인 면 등에서 유사하다”며 “폴란드가 북한 주민의 자유를 앞당기기 위해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교훈과 통찰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역은 한국 순교자의 소리 회장 폴리 현숙 박사(우)가 맡았다.

다”며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면 공산주의는 반드시 무너진다. 북한 사람들을 강하게 하고 위로하는 것은 아주 긴 여정이 될 것이나, 이것이 북한의 문을 여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폴란드 공산당 통치 및 소련 지배(1945~1989) 아래서 성장한 그는 21세 되던 1989년, 공산주의가 무너진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TV에서는 소련군이 폴란드와 동독에서 싸움 없이 평화롭게 철수하는 장면이 연일 방송됐다.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던 공산주의 체제가 갑자기 붕괴되고 평화는 한순간에 그들을 찾아왔다.

1970~1980년대 폴란드 내에는 5만 명의 소련군이 주둔하고 소련이 가져온 핵미사일이 미국을 겨누고 있었다. 미국 역시 폴란드를 향해 핵미사일을 겨누고 있었다. 1979년 권력의 최정상에 있던 소련은 아프간을 침공했고, 1980년대 중반 폴란드 주변 대부분 나라는 소련 공산주의로 뒤덮여 위세를 떨쳤다. 폴란드에서는 1981년 계엄령이 선포돼 하룻밤 사이에 수천 명이 감옥에 갇히

고, 수십 명이 사망했다. 도로마다 탱크가 서고, 거리는 통행금지됐다.

이후 1980년대 불어 닥친 극심한 경제 위기는 또 한 번 폴란드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트렸다. 월코스 목사는 “고기와 생선을 얻기 위해 몇 시간이나 줄을 서서 배급을 기다려야 했고, 차례가 다가왔을 때 음식이 떨어져 배급이 끝나 있을 때도 있었다”며 “당시 대형 슈퍼마켓도 텅텅 비어 있었고, 전력 부족으로 가스램프를 사용해 공부하는가 하면, 아버지와 함께 폐지를 모아 20~30개의 두루마리 휴지로 바퀴 자랑스럽게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고 말했다.

이어 “16~17세 때 저는 솔직히 소련 공산주의가 평생 계속될 것으로 생각했다. 심지어 소련 없이 우리도 생존할 수 없다는 생각까지 했다”며 “저뿐만 아니라 아무도 소련의 몰락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년 후 소련은 몰락했고, 동유럽에서 공산주의가 몰려갔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폴란드 기독교인들은 온몸으로 체험한 것이다.

폴란드 위한 하나님의 전략

월코스 목사는 이날 폴란드 공산주의 몰락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을 소개하며 북한 공산주의 몰락과 남북통일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제시했다.

◆전 세계 기독교인의 기도= 폴란드의 자유를 위해 전 세계 기독교인은 오랜 시간 기도해 왔다. 1979년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한 해, 폴란드 출신 요한 바오로 2세는 모국을 방문해 수백만 명의 폴란드 시민 앞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설했다. “성령강림절 전에 외칩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폴란드 내 기독교인들도 폴란드의 변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 월코스 목사는 “북한을 위해서도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이 함께 기도하고 있으므로,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러 국가의 핵심 지도자가 세워짐= 그는 “성경에 하나님이 왕을 폐하시고, 또 세우신다고 하셨다”며 “폴란드 공산주의가 붕괴될 당시 여러 국가의 핵심

2018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성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위(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영호 박사 116261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권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처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이동규 박사 학장: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 (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ua.edu
www.chongshinusu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땀과 눈물로써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4055 Wilshire Blvd. #306~308, LA,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장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북한 주민 주도 탈공산화 운동 돈보다 소망 갖도록 도와야

지도자가 세워져 있었다. 바티칸에 폴란드 출신 교황이, 미국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영국에 마가렛 대처 총리가, 소련에 미하일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세워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도 역시 전 세계 기독교인의 기도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외국에서 교회를 통해 일반 주민을 도움= 폴란드는 공산주의자들의 강력한 탄압 속에서도 가톨릭과 개신교가 무너지지 않고 함께 모이는 구조를 형성했다. 반공산주의를 외치던 유명한 가톨릭 지도자는 납치당해 잔인하게 살해됐고, 모든 교회에 당이 보낸 간첩이 활동하면서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활동을 감시하는 상황에서도 말이다.

그러나 교회가 법적으로 가능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붕괴 수년 전 폴란드 총리를 비롯해 많은 지도자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외국 정부와 단체가 교회를 통해 일반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외국인들은 재정으로 돕기도 했지만, 국내에서는 얻지 못하는 정보를 주기도 했다.

월코스 목사는 "정보는 폴란드인들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우리에게 정보는 생명이나 마찬가지로"라며 "그래서 폴란드 공산주의는 외부에서의 압력이 아닌, 강해진 일반 사람들의 연대에 의한 내부에서의 운동으로 붕괴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하나님의 섭

리라고 본다. 하나님께서 폴란드의 일반인들이 권력을 내던지고 스스로 강해질 수 있도록 일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단, 그는 1980년대 폴란드의 많은 목회자가 서구단체가 주는 자금으로 부를 축적한 사례를 들며 "돈을 무작정 주는 것은 안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 대신 "긴 여정이지만 북한의 일반인들을 강하게 하고 위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자존감이 낮은 북한 사람들이 자기 땅을 사랑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공산주의 붕괴를 위한 디아스포라의 노력=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수많은 폴란드인이 폐허가 된 고국을 떠나 디아스포라가 됐다. 이들은 국외에서 강한 구속력과 응집력을 가지고 조직을 형성해 공산주의 탄압 아래 있는 폴란드의 자유를 위해 크게 기여했다. 월코스 목사는 "우리는 어디든 북한 사람들이 발견되는 곳에서 그들을 키우고 강하게 세워야 한다"며 "제가 볼 때 현재 최선은 이미 자유 세계로 넘어온 남한의 탈북민을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북한 주민 세우는 일, 지금부터

"폴란드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과정과 방향이 바른길이라고 믿습니다. 긴 여정일 수도 있지만, 지금



2차 대전 후 바르샤바의 모습(좌)과 한국 전쟁 후 서울의 모습(우) © 한국 순교자의 소리 제공

멀다고 첫 번째 발걸음을 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월코스 목사와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작년 폴란드 상원의원들과 의회에서 북한 주민을 도울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과거 공산정권의 탄압을 받았던 로버트 마모토우(Robert Mamotow, 여당), 얀 필립 리빅키(Jan Filip Libicki, 야당) 상원의원이 함께했다.

월코스 목사는 "폴란드 교회가 폴란드 국민을 섬겼던 것처럼, 어떻게 북한 내 지하교회를 더 강하게 할지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공산주의 몰락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을 강력하게 믿으며, 제 눈으로 본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또 많은 경우 일반인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폴란드에 주신 변화를 북한에도 주셔서 놀랄 만한 일을 하실 것

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마척 월코스 목사는 통일 시대에 큰 역할을 감당할 탈북민의 가치를 더 인정하고, 그들이 힘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이 이뤄지면 지도자, 돈, 교회 등 남한이 북한에 모든 것을 쏟아 넣어야 할 것"이라며 "남북이 동등한 위치에서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흡수하는 모양이 될텐데, 북한 사람들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잘사는 나라의 종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잠재력을 잘 개발시킬 수 없게 된다"고 그는 우려했다.

공산주의 몰락 직후 폴란드에 외국 투자자들이 몰려왔을 때, 폴란드 사람들은 평균 급여가 10~20불 수준으로 매우 가난했으며, 힘이 없고 자기 나라에 대한 소유 의식도 없었다. 월코스 목사는 "우리는 당시 외국 자본가들에 의해 식민지화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며 "그러나 우리는 한걸음, 한걸음 계속 강해졌고, 외국 투자자들도 환영하지만 우리의 탈공산화 운동으로 우리가 나라를 소유하고 다스리고 싶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폴란드 정부와 폴란드인이 외국 투자자들과 균형을 잘 맞춰 경제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기적과 같은 성장을 눈으로 본 그는 "북한 사람들도 폴란드인과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자신의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소유하면 좋겠다"며 "우리의 임무는 북한 사람들의 잠재력을 키워 남한 사람들이 놀라운 나라를 건축한 것처럼 그들도 일어서게 하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폴란드의 공산주의 몰락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을 전 세계 기독교인의 기도, 여러 국가의 지도자, 외국 교회의 도움, 디아스포라의 노력 등 4가지로 꼽았다.

"하나님께서 북한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북한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아주 귀합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방법으로 북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용하실 것이며, 그들 중에는 아주 대단하고 위대한 지도자, 역사를 바꿀 지도자가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날 한국 순교자의 소리 회장 현숙 폴리 박사는 "월코스 목사는 폴란드 기독교 공무원 및 의료인과 교회 연합회 대표직을 맡고 있다"며 "이분들은 폴란드가 경험한 바를 기초로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진정한 변화를 겪을 수 있도록 한국 순교자의 소리를 통해 탈북민 기독교인들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바르샤바의 현재 모습(좌)과 서울의 현재 모습(우) © 한국 순교자의 소리 제공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 골드**로 활짝 웃으세요.

프로지 골드

PRO-Z GOLD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있으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자연으로 끝내라"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진다.

당뇨의 근본적인 치료

비만의 개선

전립선 질환 개선 및 알츠하이머의 예방

Cyclo-Z
세계최초 당뇨치료를 위한 생약제제

프로지골드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 골드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43% (하지절단)
37% (미세혈관병증등)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1병 \$60+Tax
3병 \$170+Tax
6병 \$330+Tax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국가대표 제1과학자 송문기 박사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UCLA에서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미 연방재정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

핵심은 아연의 흡수
(C-Z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전화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8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지금도 1분에 30명, 하루 5만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갑니다.

\$35 이면 아동 한명이
한달동안 건강하게 학교 다닐 수 있습니다.

\$100 이면 아이티 아동 10명이
한달동안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5200 이면
아프리카 잠비아에 깨끗한 물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 금식운동

2018
전세계
빈곤아동돕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명예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58장6절


소중한 헌금은 25개 빈곤국가의
아동들을 위한 급식지원사업비로 사용됩니다.

보내실곳 : Good Neighbors USA P.O. BOX 5969, Buena Park, 90622

패키지 신청문의 : 877-499-9898 | korean@goodneighbors.us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52개 지부, 북한 및 해외 38개국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굿네이버스